

# RaonAtti 9th Thailand team March Report



안녕!  
잘 부탁드립니다







## 일정

- Welcome Party
- Nursery Center
- Day camp + Language school
- Work camp
- Lampang Village

## 태국 알기

- Maejo university
- Sobgomhat Village
- Thai Language
- Buddhism Ceremony
- Sankhampheang Walking Street
- Bossang & Hotsprings

## 관계 맺기

## 3월의 총평





일정







# 태국에서 새로운 가족들을 만나다 태국에서 새롭고 아름다운 시간을 마다다



O.T  
그리고  
새로운  
이름이  
생기다.

Sao-hin YMCA의 책임자이신 P'di로부터 앞으로 5개월간 우리가 해야 할 일들과 일정들을 전달 받았고, 서로 잘 어울려 살아가라는 의미의 이름을 받았습니다.



3월 7일,

한국을 출발해 새로운 보금자리인 태국 싼캄항에 도착했습니다. Hot한 날씨 만큼이나 Hot한 환영을 해주셨고, 함께 맛있는 저녁식사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은지  
Pla (쁘라)  
: 물고기

김도기  
Nam (남)  
: 물



안혜인  
Kung (꿍)  
: 새우

김동훈  
Doi (더이)  
: 산







# Welcome Party for RaonAtt 9th

처음으로 Y 관계자 분들에게 우리 4명을 소개하는 자리이자  
우리가 앞으로 함께하게 될 많은 사람들을 만난 자리였습니다.  
처음이라 어색하고, 불편한 감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환영해주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이름을 다 외우지 못한 아쉬움이...







**Nursery Center**  
 이틀간의 일정이었던 Nursery center에서 organic farm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태국은 농업과 환경을 중심으로 하는 나라이며, 민·관·NGO가 협력이 잘 이루어 지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또한 직접 일을 하면서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한 보람과 땀의 가치를 느꼈습니다.







# DAY CAMP

약 2주간

아이들과

어울리기 연습

RaonAtti  
and  
Friends of Asia

Circle  
triangle  
Square





즐거움 게임시간



다양한 활동



**우리가 만난 사람들**

광 선생님과 데이캠프의 아이들  
(따따, 파이뽀, 티우만, 쥬니아, 돈, 또, 쇼쿨, 문센, MK...)

## DAY CAMP

아이들과 만나서 한국어수업, 놀이활동, 종이접기 등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2달 후, 학교에 들어가기 전 연습이라 생각하며 열심히 임했습니다. 태국 아이들에 대해 알 수 있는 계기였고, 선생님과 친한 언니, 오빠 역할의 사이에서 역할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 주말 Y학교


3주 동안 진행했던 주말 Y학교. Day camp와는 다르게 주말 Y학교는 Language school로 진행되었습니다. 치앙마이 대학교 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있는 교실에 30분씩 들어가 메인 선생님이 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연습을 했습니다. 선생님께서의 역할을 체험할 수 있었고, 어려웠지만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 주말 Y학교

데이캠프에서는 놀이 위주로 수업을 진행했지만, 주말 y학교에서는 공부 위주의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30분이라는 짧은 시간을 알차게 보내기 위해 여러가지 준비를 해보고 다양한 시도도 해보았습니다. 감정표현 수업을 위한 감정 연기, 직업에 대한 수업을 위한 다양한 직업 표현 연기, 그리고 게임을 통한 반복학습 등을 준비해서 진행했습니다. 아이들과 말이 안통하는 부분이 아쉬웠지만, 선생님이 옆에 계시면서 많이 도와주셔서 다행이었고 좋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많이 언어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만난 사람들

치앙마이 대학교 대학생 선생님들  
주말 Y학교 아이들



# WORK CAMP DAY-1

[Work camp :  
KOBE Y와 Chiang mai Y의  
주최로 양국의 youth 친구들이  
모여 지구에 대해 고민하며,  
직접 자원활동을 하는 프로그램]

3일간 진행된  
고베Y, 치앙마이Y의  
30번째 대학생 워크캠프에 참여  
하게 되었습니다.

첫 날은  
일본 친구들, 태국  
친구들, 라오스 친구들을 처음  
만나는 자리였고, 낯설었지만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며  
가까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환경 및 기후, 에너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 사오힌 YMCA 에너지 교육

에너지와 환경에 중심을 두고 있는 사오힌 YMCA에 방문하여  
대체 에너지, 기후-환경 문제 등 350PPM에 관한 교육을 받고,  
직접 대체 에너지를 이용해서 간편한 요리도 만들어보았습니다.





# WELCOME PARTY FOR WORK CAMP

저녁식사와 함께 진행된  
Welcome party!  
하루동안 같이 활동해서인지  
처음 서로 소개하는 자리였지만,  
어색하지 않았고 즐거웠습니다.  
친구들과 맛있는 저녁식사를 하며,  
각 나라의 다양한 공연들을 보며  
서로의 문화를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 SAVE THE EARTH

에너지 교육 후,  
모두가 함께 페인팅 캠페인을 했습니다.  
'지구는 아름답다' 라는 주제를  
각 나라의 언어로 표현해 보면서 모두가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환경에 대한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난 사람들**

과제 Y 일본 친구들,  
태국 youth Y 친구들,  
라오스 관계자 분들, 피차, 피담 등등...





# 슬럼가 방문 [아이들과 친해지기]

두 번째 날에는  
쓰레기 줍기 교육을 위하여 치앙마이 근처에 있는  
슬럼가를 방문하였습니다.  
먼저 슬럼가로 들어가기 전, 아이들을 만나  
환경 교육과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들을 만나기 전에는  
아이들에게 다가가기 힘들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아이들을 만나보니 너무나 밝고,  
여느 아이들과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한  
핸드 페인팅  
캠페인 슬로건 만들기



## WORK CAMP DAY-2





## 분리수거 교육

플라스틱/유리/페트/종이  
4가지 분리수거통을 아이들에게 소개하며  
분리수거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교육들을 하였습니다.  
아이들도 집중하며 열심히 들었습니다.



## 슬럼가 방문

교육이 끝난 후, 슬럼가에 쓰레기를  
줍기 위해 직접 방문했습니다.

슬럼가에는 큰 담벼락이 있었는데, 이 담벼락  
너머에는 크고 좋은 집들이 있었습니다.  
담벼락 하나를 사이에 두고 펼쳐진 큰 격차와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 안타까웠고,  
걱정이 앞섰습니다.

잠간의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마을에 있는 쓰레기를  
자발적으로 줍는 모습을 보며  
아이들이 기특하기도 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 WORK CAMP DAY - 3



## 치앙마이 탐방

태국을 이해하기 위해서 워크캠프 친구들과 치앙마이에서 가장 유명한 수탑 절과 치앙마이 역사박물관에 다녀왔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탐방하면서 치앙마이의 역사에 대해 알게 되었고, 친구들과도 더 돈독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을 먹고 헤어지는 시간이 되자 너무 아쉬웠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들과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 람팡에 가다! Asian Peace Library



5일간 홈스테이를 하게 된 람팡.

첫 홈스테이에 부담도 컸지만, 저희에겐 Asian Peace Library 일손을 돕는 일이 주된 할 일이었습니다. 전문 공사 업체를 통하지 않고, 마을 분들이 서로 힘을 모아 짓는 다는게 놀라웠고, 건축부터 페인트 작업까지 즐겁게 임하시는 모습에서 협력의 큰 의미를 배웠습니다.

또한 함께 청소 작업, 샌딩 작업과 페인트 작업을 하며, 서로 힘들 땀 같이 쉬기도 하고, 또 같이 힘내서 일을 하며 서로 더 돈독해질 수 있었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 람팡의 Organic

람팡에서는 학남잔 그룹을 중심으로 오가닉 작물 재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햇살과 물을 주며 어머니들이 정성껏 관리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태양열 전기를 사용하고, 자전거를 이용해 물을 끌어다 쓰며, 바이오 가스를 사용하는 모습들이 저희가 배워야 할 것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한국어 수업

3일 동안 저녁 7시에 학교에 모여 아이들과 90분 정도 한국어 수업을 했습니다. 마을에는 공감만세나 라온아띠가 몇 번 다녀가서 그런지 아이들이 한국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싼캠프의 아이들과는 달리,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많아 수업에 집중하는 모습에 저희도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수업을 매개로 일할 때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과도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 HOMESTAY



## 더리와 피톱네 가족

수줍음 많은 소년들이 있던 P tob네 가족과 함께한 5일이 참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웃고 놀고 일하며 보내던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어느샌가 아들 2형제가 아들 3형제로 바뀔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퍼, 메 모두 더리에겐 태국에서 얻은 새로운 가족이고 새로운 인연이며 그곳에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얻어갑니다.

## 남과 메깨우 가족

성태우 운전사인 퍼깨우와 올가닉 팜을 가꾸는 메깨우 가족과 함께 산 5일 동안 우리가 있고 있었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몸짓으로 대화하고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던 경험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 공, 브라와 메라 가족

공과 브라는 메라(MEE-RA)의 집에서 홈스테이를 했습니다. 메라는 데이캠프 때 만났던 아이-바이띠어-의 할머니입니다. 8기 정용택 단원이 지냈던 집이었고, 메라의 가족이 기억하고 있는 모습에서 그 분들의 사람에 대한 마음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메라는 공과 브라에게 진짜 할머니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셨고, 그 마음을 오래오래 기억하고, 다시 한번 방문하고 싶습니다.



## 헤어짐의 시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5일이라는 시간동안 램팡에서 홈스테이를 했고, 새로운 가족을 만났습니다. 2달 동안 항상 붙어있다가 처음으로 따로 떨어져 생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새롭기도 했고, 팀원이 보고싶기도 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으나 그 분들이 주시는 정을 느낄 수 있었고, 헤어질 때 흘리시는 눈물에서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후에 2달동안 하게 될 홈스테이를 미리 연습하는 시간이었고,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 태국 알기





ศูนย์ต้อนรับผู้มาเยือนแม่โจ้  
Maejo Welcome Center



## 메조 대학 방문

웰컴 파티에서 만난 필리핀 친구들이 교환학생으로 와있는 메조 대학교에 방문하였습니다. 메조 대학교의 유래도 듣고, 필리핀 친구들에게 우리나라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진 후 함께 식사를 하며 관계를 돈독히 하였습니다. 그 후에는 차를 타고 메조 대학 곳곳을 돌며 태국의 기반 산업인 농업에 대해서 알아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나라 대학과는 다르게 태국의 대학은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태국 북부 지방 농업의 특성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만난 사람들**  
메조 대학교 필리핀 친구들과  
관광학과 담당자 분





## 태국어 공부

일주일에 2-3회 정도 피멍과 함께 태국어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태국어를 공부하면서 피멍과 태국의 일상적인 모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태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태국어는 어렵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마을에 갔을 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 SobGomHat 마을 방문

여러 부족이 살고 있는 태국 시골 마을을 방문하였습니다. 이장님을 만나 청소년의 마약 문제와 정부의 지원금이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등, 그 마을의 문제를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후에는 마을 구청을 방문하여 시골 마을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하는 관 차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부디즘 세레모니

태국이라는 나라가 불교를 중요시하는 만큼 불교에 대한 존경과 번영을 기원하는 지역 불교 의식에 참여하였습니다. 마을 동네 주민들이 모여서 함께 밥을 먹고, 절에 도착하는 길까지 춤을 추며 이동하는 모습이 우리나라와는 달라 신선하고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도 함께 춤을 추고 밥을 먹으면서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만난 사람들

디릉네 가족과 마을 사람들



## 산캠펙 워킹 스트리트

매주 토요일 6시부터 9시 사이 산캠펙 메인 도로에는 차량이 통제되고 사람들이 모여 야시장이 열립니다. 먹거리에서부터 생필품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물품들이 판매되며 외국인, 지역주민 할 것없이 모두 밖으로 나와 야시장을 즐깁니다. 저희도 이것저것 쇼핑을 하며 태국의 야시장 문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 보상

종이 공예 우산이 유명한 마을로써 우산 제작 과정을 견학할 수 있었습니다

# 보상 & 핫스프링스

산캄펑 근처에 있는 관광 명소를 방문하여 태국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쁜 우산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보고 그 동안 쌓였던 피로도 푸는 시간이었습니다.



# 핫스프링스

태국식 온천으로서 일본이나 우리나라 온천과는 다르게 아름다운 공원처럼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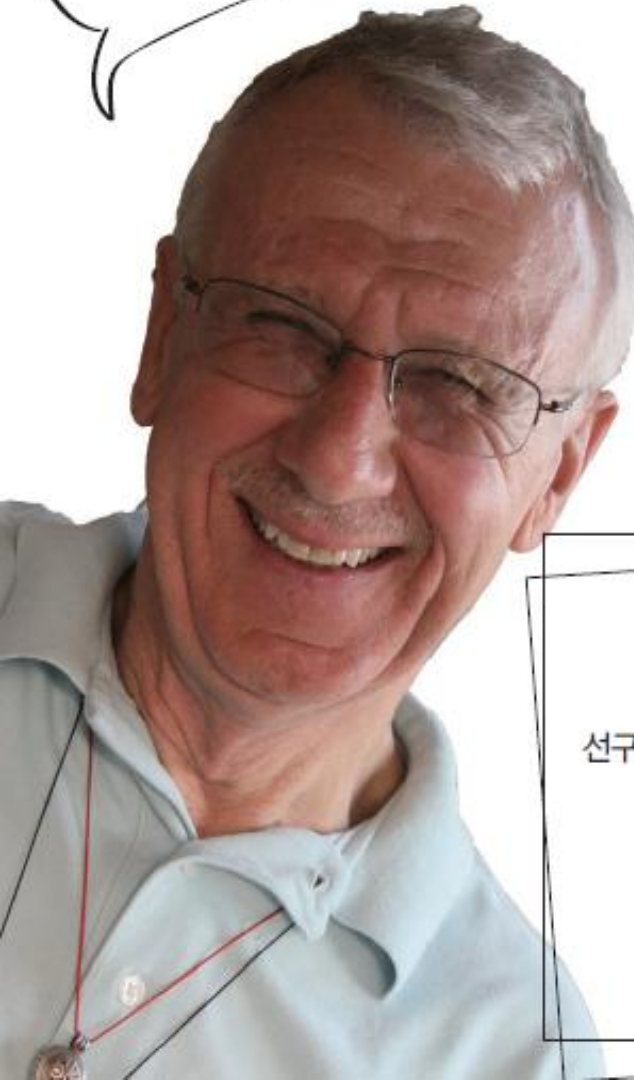
# 관계맺기

อันแก๊งค์ตุ๊กตาสีชมพู





woo hi!



## 놀먼 (Norman)

### 소개

캐나다에서 온 자원활동가 올해로 65살(?)  
태국에 9년간 자원봉사를 하면서 많은 지식 보유(?)  
1기부터 9기 라온아띠를 다 만난 레전드(?)  
5월 10일 캐나다로 다시 돌아감.



### 관계

우리가 활동을 할때 항상 곁에 계셔서 우리에게 태국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들을 소개 해주심  
할아버지같은 인자함으로 인생에 있어 다양한 조언과 충고를 잘 해주심  
우리에게는 멘토같은 인물

## 민아 · 선구 단원

### 소개

라온아띠 1기 태국팀 조상님(?)  
선구단원은 스위스에서 근무하다 회의차 참석에 산캄펑 방문.  
민아단원은 여행차 방문

### 관계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진 못했지만 짧은시간이나마  
라온아띠로서의 많은 조언을 해주심





# 피뱃

## 소개

Thrill CAFE의 주인이자 한 가정의 아버지  
도기단원과 나이가 동갑!!

## 관계

산캠프에 와서 마을사람으로써 처음 사귄 친구  
카페를 운영하면서 산캠프 젊은이들의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제공,  
우리도 편안히 찾아 갈 수 있었던 쉼터  
자기만의 가치관이 뚜렷한 멋있는 사람!

피엄

똥

피판

똥







# 3월의 양평





태국에서 보낸 3월 한달...저에게는 김동훈이 Doi라는 새로운  
웃을 입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태국이란 나라에 왔고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한사람의  
라운아피로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발랜티어에서 한국어 선생님, 잘 놀아주는 외국인형, 어떤때는  
태국 가족의 새 식구에 이르기 까지 싼캄팍에서 부터 지금 이곳  
치앙라이에 오기까지 태국사람들뿐 아니라 많은 친구들과  
만나고 헤어졌지만, 매 순간순간 함께 있던 이들과 소통하고  
교감하고 함께 있어서 돌아보면 자연스레 웃음이 나옵니다.  
지난 한달..돌이켜보니 이제 시작에 불과한데 저 스스로 많은  
것을 생각하고, 행동하고, 깨닫고자 스스로를 옥죄고 있었던  
시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4달 조금더 여유롭게,  
즐겁게, 유쾌하게 한사람의 자원활동가로서, 하얀 태국인 Doi  
로써 저 자신에 대해 고민해보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벌써 한달이 지났다는 말, 팀원들끼리 몇번이고 했던 말입니다.  
싼캄팍에 도착해 이곳 저곳 돌아다니며 인사드리고,  
친해지고, 익숙해진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다른 지역의 Y로 와서 또 다른 한달을 살아나가려니  
다시금 설렘과 막막함이 찾아옵니다.  
그동안 적응이라는 핑계로 많은 것들을 쉽게 쉽게  
해나갔던 것 같습니다.  
이번달 부터는 좀 더 제 자신에 대해 고민해보고,  
우리가 해야할 일들에 대해 더 많이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1달 동안 태국이라는 곳에서 살면서 한국에서 느낄 수 없는  
많은 정들을 느꼈고, 많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 정과 경험을 잘 풀어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남은 4개월 더 화이팅 하겠습니다!

## 3월 한 달 총평

태국에 온지도 벌써 한달이 지났습니다.  
낮선 환경에서 팀원들과 낯선 사람들을 만나 친해지는  
과정을 겪고,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헤어지는 법도 배우며  
한국에서보다 더 편하게 사람을 만나고 마음을 열며  
더 많은 것을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한달이 지나고 보니 내가 무엇을 했는지, 잘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 고민도 되고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 아쉽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계속 고민하면서  
지금 이 곳에서 할 수 있는 일들부터 해나가겠습니다.  
한 달동안 팀원들 모두 크게 다치거나 아프지않고  
무사히 잘 보내 다행이고,  
앞으로 남은 4개월도 건강하게 잘 보내길!



'시간은 화살처럼 빠르다' 태국에 온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시간은 손살 같이 지나 간 것 같습니다.  
보고서를 쓰면서 한 달동안 했던 일을 정리해보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색다른 경험을 하고 많은 것들을 보고 느꼈습니다.  
어떻게 보면 라운아피가 한국에서 취업준비를 하고  
있었을 지도 모르는 저에게 단비같은 기회라는 생각도 듭니다.  
3월 한 달 동안을 살펴보면 주어진 일정에 따라가기 바빴고  
우리가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 가려는 노력은 적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적응 기간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달 부터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 번 달려 보려 합니다. ㅎㅎ  
나 스스로에게도 화이팅, 우리 팀원들도 화이팅!!

